

법회·행사 취소 잇달아 “사찰內 예방교육 필요”

신종코로나 사태, 불교계 영향 ‘일파만파’

신성민·노덕현·윤호섭 기자

신종코로나 국내 확산으로 인해 불교계 각종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형행사의 취소와 함께 일선 사찰과 불자 개개인의 위생의식 고취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에서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는 부분은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다. 불교계는 행사 취소 및 연기를 비롯해 사찰 법회시 신도들의 활동 자체 등을 요청하고 있다.

먼저 신종코로나 국내 확산이 본격화된 2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정초기도에서 신종코로나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법문했다. 원행 스님은 “업이라는 것은 별업이 있고 공업이 있는데 혼자 짓는 게 있고 여럿이 짓는 게 있다. 공업으로 바이러스 등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 우리는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같이 겪고 같이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도 2월 4일 장관 주관 하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국내 7대 종교지도자를 초청,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템플스테이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전국 운영 사찰에 감염증 대비 지침을 내렸다.

대중 운집 행사 일정 조정

신종 코로나 확산에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2월 4일 입춘 기도를 맞아 일주문에서 조계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조계사는 이후 2월 16일 동안거 생명살림기도법회를 전격 취소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길상사가 2월 1일 신년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법회를 취소했다.

지역에서도 행사 취소와 연기가 줄을 잇고 있다. 부산 범어사가 2월 10일 정월방생법회를 연기했으며, 공주 마곡사도 2월 6일 합동방생법회를 취소했다. 울산 황룡사도 2월 8일 방생법회와 제4회 천진불어린이합창제를 취소했다.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또한 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입춘과 정월대보름 행사는 스님들만 진행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 방문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도록 신도들에게 문자 통지했다.

군포교·학교·복지 등도 영향

불교계 군·교육·복지포교 현장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산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군법당 108 평화순례단은 2월 23일 호국사자사서 개최 예정이던 ‘평화의 불’ 봉안법회를 취소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도 2월 21일 군불총 창립법회 연기를

검토 중이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조계종립 동국대도 주요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오는 2월 13일 예정돼 있었던 2020년 불학위수여식을 8월 가을 학위수여식과 통합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 신입생 입학식, 24일 전체교수회의와 2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신입생 새터, 대학원 및 학부 신(원)입생 오리엔테이션 등도 취소기로 결정했다.

중국인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동국대 어학당은 2월 4일부터 재개강했으나,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오프라인 강의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주요 학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월 14일로 예정된 학위수여식과 2월 26일 예정된 신입생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취소기로 결정했다.

지역 확진자 발생에 의한 사회복지관 등 불교계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휴관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종로구 방침에 따라

원행 스님 “질병 共業, 함께 극복”

전국 사찰선 방생법회 등 취소돼

종립학교 졸업·입학식 전면 조정

불교계 복지관들 휴관도 이어져

2월 16일까지 휴관기로 했으며, 하계사회복지관도 무기한 휴관을 예고했다. 서울시 방침이 나오는 대로 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의 휴관도 결정될 예정이다.

불자 위생·예방의식 고취 기회로

신종코로나 확산은 불자들의 신행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원 불자들의 구심체인 병원 불자연합회는 2월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법회와 3월까지의 법회 및 봉사활동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불자연합회도 2월 15~16일 순천 송광사에서 개최예정이던 신년법회를 3월 말로 잠정 연기하고, 이날 같이 진행예정이던 신임 회장 총회는 임시총회로 변경해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류재환 병불련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확산이 멈추더라도 완치율이 완전히 높아지는 시기,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사회 곳곳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앞으로 불교계가 손 소독을 생활화하고 예방교육 등을 꼼꼼히 진행한다면 오히려 사찰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없는 문’을 열고 상월선원 대중이 세상으로 나왔다. 지난해 11월 11일 입재 이후 석달 간의 정진을 마친 아홉스님들은 덩수룩한 머리에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환희로웠다. 사진은 2월 7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가장 먼저 위에 상월선원 문을 나서는 화주 자승 스님 모습.

상월선원 무문관 대중, 세상에 나오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회향… 9명 스님 정진 성료

진제 스님 찾아 짧은 법문

“광도중생 매진하자” 당부

법회 취소에도 대중 운집해

정진 대중들에게 감사 인사

신도시 공사 현장 한복판에서 비닐하우스 천막 무문관을 세우고 동안거 정진을 한 위에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90일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위에 상월선원은 동안거 해제일을 하루 앞둔 2월 7일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대규모 법회를 취소하고 사중 행사로 전환했지만, 상월선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000여 명의 대중이 운집했다. 법회는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상월선원 천막법당을 참배하고 무문관

정진동으로 이동하며 시작했다.

“문 열어라!”

천막 무문관 정진동 앞에 선 진제 스님이 일갈하자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석달 간 굳게 닫혀있던 ‘문 없는 문’이 열렸다. 진제 스님은 몸소 안거 기간 동안 무문관 정진을 했던 9명 대중들을 제접하기 위해 들어섰다.

정진동에 들어선 진제 스님은 9명 정진 대중들에게 베풀같은 법문을 섰했다.

“금일 모든 대중과 정여무정(情與無情)들은 아홉 분의 진면목을 아시겠습니까!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바로 보면 천상 인간이 홀로 걸음할 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을 활짝 열고 광도중생에 다 같이 매진합시다!”

진제 스님의 짧고 강렬한 법문이 끝나자 가사와 장삼을 수한 화주 자승 스님(조계종 前 총무원장)을 비롯해 선원장 무연 스님, 입승 진각 스

님, 한주 성곡 스님, 지객 호산 스님, 지전 재현 스님, 정통 심우 스님, 시자 도림 스님, 다각 인산 스님 등 아홉 대중들이 비로소 모습을 보였다. 처음 들어갈 때 정한 청규대로 안거 기간 동안 삭발과 면도를 하지 않아 덩수룩한 머리와 수염이었고 수척했지만, 표정만은 밝았다.

선방을 나선 정진 대중 스님들은 가장 먼저 삼천대전세계에 감사와 발원의 삼배를 올린 뒤 곧장 천막법당으로 이동했다. 스님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도열한 사부대중들은 연신 “감사합니다”라고 무탈 회향을 응원했다.

9명 정진 대중 스님들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스님들의 삼배는 세상과 부처님, 그리고 사부대중을 향해 있었다. 도열한 대중들의 격려 속에 이동한 9명 스님들은 각자의 주석처로 돌아갔다.

한편, 무문관 정진 대중들은 각자 교구본사로 돌아가 동안거 해제일에 봉행되는 해제 법회에 참석한 뒤 만행에 나섰다.

위례=신성민 기자

〈관련기사 2면·7면〉

“재발심과 대분심으로 정진”

2월 8일 동안거 해제… 2000여 수좌 만행

지난해 11월 11일 입재한 기해년 동안거가 석달간의 정진기간을 끝내고 2월 8일 해제했다. 이에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은 동안거 해제법어를 내려 수행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해제일인 지금 재발심과 대분심(大憤心)으로 정진(精進)의 끈을 놓지 말고 가일층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결제의 대중은 각자가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

제기간 동안 얼마나 화두일념을 이루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기해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9개 선원(총립8·비구선원58·비구니선원33)에서 총 1966명(총립276·비구1049·비구니641)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정·총림방장 해제법어 5면〉

윤호섭 기자

『대승기신론』과 『해동소』의 정수를 온전히 풀어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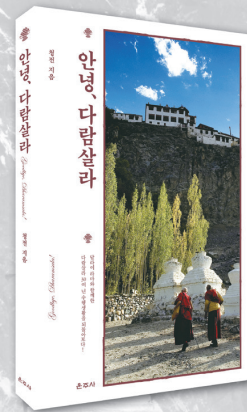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3

대승불교의 교과서 『대승기신론』과 그 주석서로 인도와 중국을 뒤흔든 원효의 『소별기』!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쏙 들어오는 해설!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 안장/각권 400여쪽/각권 20,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